# '옛 전주부성 일대 역사 보존지구로'

## 시, 도심 기본계획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전주한옥마을 인근 옛 전주부성 일대가 역사·문화 보존지구로 보호·관리된다.

전주시는 올해 8억1300만원을 들여 전주부성과 주변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전주부성이 자리했던 전주시 중앙동과 풍남동 일대를 대상으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통한옥지구와 전통문화지구 등 한옥마을 중심의 역사·문화 보존지구를 옛 전주부성 밖까지 확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 용역은 전주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의 보전과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전주 도심부의 장기비전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구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는 지난 11일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7월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간 도시의 중심기능과 업무기능과 같은 물리적인 부분에 중심을 맞춰져왔던 도심관리계획을 시민들의 이야기와 삶,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의미 있는 전환을 시도한다.

또한 옛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잘 보존된 한옥과 근대식 건물 등 역사문화자원들을 활용해 한옥마을로 국한된 전주의 역사·문화관광 지구를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 첫 번째 단계로 현재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근·현대 건축물과 옛길, 생활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기본계획에 담아낼 예정이다. 또, 역사 및 도시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각계의 자문을 받아 계획 수립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중앙동과 풍남동 일원으로, 전주 원도심 지역에서도 근대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옥마을을 비롯한 풍남문과 그 주변 지역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 상징성이 가장 뚜렷한 곳으로, 이들 지역은 1970~80년대 근대건축물과 도로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과 인접한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등에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 열정 가득한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어 관광객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김영재 기자

## 간호조무사 성추행 7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형 판사)는 18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3시 50분께 무주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23·여)의 엉덩이를 2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달 19일 이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30·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민중총궐기는 무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궐기를 빌미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부안서 통학버스-트럭 충돌

18일 오전 8시30분께 부안군 동진면 부안 IC입구에서 부안교육지원청 통학버스와 송모(61)씨가 몰던 25t 화물트럭이 충돌했다. 초등학생 등 10명을 태운 통학버스를 들이 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트럭에 떠밀린 통학버스가 인근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버스 운전자와 교사 1명, 초등학생 8명 등 1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학버스와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안진수 기자

기사제보 288-9700

# "전주항공대대 이전 찬반 주민투표하라"

## 도도동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 촉구

전주항공대대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사업 찬반 투표를 촉구했다.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전주시청 기자실에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을 군공항 이전에 준하는 행정절차로 진행하고, 전주시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결과 헬기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소음환경기준을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기준(75웨클)을 적용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통보, 지역민들의 호소를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와 국방부는 항공대대를 '공항'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행정절차와 주민지원대책은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이전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 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다"며 군공항 이전에 준하는 행정절차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도 항공대대 이전 사업 중단과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며 "전주시가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주을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회에서 항공대대 이전사업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제부안의 김종회 당선자와 익산을의 조배숙 당선자도 도도동 이전사업 관련 정책질의서에 반대 입장을 회신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 IC진출입로 재포장한다

## 덕진구, 22 · 26일 공사 실시

덕진구(구청장 정태현)에서는 노후된 전주IC 진출입로에 대해 재포장 공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전주IC 진출입로는 많은 차량들이 왕래하는 전주 관문으로 도로 포트홀 등 도로파손이 발생돼 그동안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전주 IC진출입로 노후도로 재포장공사는 연장 약880m로 오는 22일은 전주 IC진출로(IC → 시내), 26일은 전주 IC진입로(시내 → IC)에 대해 양일 동안 재포장 공사를 실시한다.

해당 공사 현장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1개차로인 구간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각 교통통제(차량 우회 및 유턴)가 요구되고 있다.

덕진구 건설과 관계자는 "전주 IC진출입로 재포장공사로 인해 불가피한 차량 우회 및 유턴 유도에 대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조성

## 걷기 장애 시설물 철거

전주시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도로 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전주시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비우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로 내 불필요하고 무질서한 시설물을 통폐합하고, 기능이 상실된 시설물은 철거하는 등 시민들이 장애물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점검 및 철거, 통폐합 대상은 가로등과 통신주, 안내표지, 신호등, 공중전화부스, 소화전 등 도로상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관리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신규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도로비우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와 우체국, 한국전력 등 관리기관이 다른 시설물간의 통합 설치·정비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는 교통안전시설물을 통합·정비·개선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이용률이 낮아지고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 등을 보도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특히 시는 도로비우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로비우기 사업 시민홍보책자와 영상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또, 도로비우기 사업의 필요성과 정비사례를 통한 보행개선 효과 등을 꾸준히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전주시 도시비우기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도로 관련 기술직 공무원과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오는 21일 전주한벽극장에서 도시비우기사업의 우수사례로 알려져 있는 종로구청의 도시비우기 사례와 기법을 소개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영문 전주시 도로하천과장은 "교육 참석자들이 도로비우기에 대해 의식을 높이고 사람중심의 가로친화형 도시를 만들어 전주시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값비싼 배드민턴 라켓만 훔친 20대 붙잡아

값비싼 배드민턴 라켓만 골라 훔쳐 팔아넘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배드민턴 라켓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7일 12시10분께 익산의 한 배드민턴 전용구장 남자탈의실에서 박모(34)씨의 배드민턴 라켓(2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날까지 총 23회에 걸쳐 고가의 배드민턴 라켓만을 노려 모두 25개(423만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절도 피해에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브랜드 배드민턴 라켓만 중고로 다수 판매한 대학생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붙잡았다.

경찰에서 김씨는 훔친 라켓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반값에 팔았다고 진술했다. /안진수 기자